

If today you are using an interface on your computer, that is not a command driven interface, but rather is mouse, menus and windows. You owe a debt of gratitude to this guy - pun intended.

오늘날 컴퓨터 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명령어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아닌 마우스나 메뉴 또는 윈도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여기 나와계신 이분께 많이 감사하셔야 할겁니다. ㅎㅎ 말장난 한번 해봤습니다. (this guy에서 guy는 남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이 카와사키의 이름이기도 함을 나타내는 농담입니다 - 가이 카와사키가 있었던 애플사에서 1984년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출시하여, 아이콘, 메뉴, 마우스 등의 GUI 시스템으로 컴퓨터의 사용을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So he's also a prominent thinker and a best selling author on the topic of how to be successful in a technology driven business. How many books Guy?

그리고 이 분은, 저명한 사상가이자 기술 기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법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베스트 셀러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가이씨, 책을 몇 권이나 내셨죠?

Guy: nine.

가이: 아홉권입니다.

Nine books. And he's the founder of Garage Technology Ventures and Alltop.com, which he'll tell you about. So please welcome, Guy Kawasaki.

아홉권입니다 여러분. 또 이분은 Garage Technology Ventures 와 Alltop.com의 창립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가이씨가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도 이것에 관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 카와사키 입니다.

Guy Kawasaki:

Thank you. Thank you.

가이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One of the, one of the hazards of being in a business for so long is that I've made about five speeches in the last week, and people now introduce me with some line about - he's the elder statesman of Silicon Valley, and has over two decades of experience in the business, and I did the math, and it really is two decades. Now that is frightening. To think you are introduced as an elder statesman with two decades. I don't remember being two decades old, much less having two decades of experience in one industry, so I really hate that kind of introduction. So you know it really pisses me off every time somebody says err. I'd much rather be known as that bright young entrepreneur that's changing the world but errm that dog don't hunt anymore I guess.

오랜기간 비즈니스에 몸을 담으면서 위험하다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지난주 5차례의 연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몇 단어로 저를 소개하더군요. - 실리콘 벨리의 원로, 20년 이상의 비즈니스 경력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십년이 넘었더군요. 이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20년 경력의 원로로 소개 받았다고 생각해봅시오!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가는 바람에 한 분야에서의 제 경력이 20년이나 되었다는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소개받는건 정말 싫습니

다. 자 이전, 매년 다른분들이 저를 소개할 때 정말 저를 기분나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 겁니다.(농담조), 원로, 20년 이상의 경력자 이런 말 대신, 세상을 바꾸는 밝고 젊은 기업가로 알려졌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저를 불러주는 사람은 없을것 같군요. (that dog don't hunt anymore – 젊고 어린 개들은 사냥을 하지만, 나이 든 늙은 개는 더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즉, 자신의 나이가 젊은 기업가로 불리기엔 많이 늙었다는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So, a little bit more about my background, which Elexis has so callously overlooked. I worked for Apple as he said from 1983 to 1987. My job was to evangelise Macintosh to software companies, so, I've met with software companies and convinced them to write software for a computer that had no installed base, no compiler, no hard disk, no colour screen. You know, like the Steve Jobs reality distortion field, that's what I had to do. And it was the most enjoyable experience of my life. It was like being paid to go to Disney Land everyday. It was a great time.

자, Elexis (사회자)가 매우 냉담할 정도로 무관심한 (농담조) 제 약력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 Elexis가 앞서 이야기한것 처럼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애플에서 일했습니다. 저의 일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매킨토시를 알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에 계신 분들을 만나, 설치 기반도 컴파일러도 없고 하드 디스크도 컬러 스크린도 없는 애플 컴퓨터를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스티브 잡스의 현실왜곡장처럼 (스티브잡스의 뛰어난 언변을 묘사하는 말로 평소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스티브잡스 말만 듣게되면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해야하는 일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컴퓨터는 IBM 중심이어서, 소비자가 없던 애플 컴퓨터를 위해 프로그래밍을 할 소프트웨어 회사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 카와사키는 스티브잡스처럼 뛰어난 언변의 셀링스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매일 디즈니랜드에 가는 것처럼 너무나 유쾌한 시간들이었죠.

The Macintosh division, this was in the mid eighties, was arguably the greatest collection of ego maniacs in the history of Silicon Valley, that's saying a lot - there's a lot of ego maniacs in Silicon Valley. I think that record though has been broken now by Google subsequently.

매킨토시 부서는, 80년대 중반 실리콘 밸리 역사상 광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제일 거대한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 밸리에서 맥 부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집합체였죠. 하지만 이제는 구글이 그 기록을 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 between 1984 and 2000, the Mac Division held that record - but Google broke the record.

1984년부터 2000년까지 맥 부서가 이 기록을 유지했지만, 후에 구글이 그 기록을 깨죠.

We had very special treatment because we worked for Steve Jobs. Unlimited supplies of fresh orange juice at \$2.00 a bottle. Unlike any other division at Apple we could fly first class on any flight over two hours, and my interpretation of that rule, is that the two hours begin the moment you leave your apartment, so if I was going from San Fransisco to Monteray, I'd fly First Class.

저희는 스티브잡스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병에 2불이나 하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무한으로 제공받았습니다(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현재 5천원에 만원 정도의 가격이니, 정말 비싼 주스인셈이죠). 또 애플의 타부서와는 다르게 2시간 이상의 비행에서는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저의 해석은 집을 떠나는 순

간부터 2시간이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몬테레이까지 가는것도 퍼스트 클래스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몬테레이까지는 약 100마일정도로, 차로도 약 2시간 남짓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And the company back then was divided in to two divisions. There was the “P” division and the “L” division, as in profit and loss. The “P” division was the Apple II division, selling boat loads of Apple II’s. The L, the loss division was the Macintosh because we were not yet shipping, we were just spending money. Just to give you an indication of what bad people we were, we would not let Apple II division people into our audience err. Into to our audience, into our building, which is kind of bizarre if you think about it. Working for the same company and not being allowed into the building, that is part of you own company, and, AND you were paying for that building.

예전엔 회사가 두 부서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두 부서는 바로 “P” 부서와 “L” 부서였습니다. 이것은 Profit 과 Loss의 약자였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P” 부서는 Apple II 부서로 당시 “Apple II” 컴퓨터를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손실을 내는 “L” 부서는 바로 매킨토시 부서로 저희는 그 당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어서 계속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쪽이였죠. 게다가 우리 부서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저희 청중안에.. 청중안에? 아니 저희 건물안에 (건물을 청중으로 잘못 말한 것 입니다) Apple II 부서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또 회사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실적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여러분을 그 건물안에 들이지 않는다는게 말이죠.

So err, I have to tell you this joke about the Mac division. How many mac division employees does it take to screw in a light bulb? The answer is one. The Macintosh division employee holds up the light bulb and expects the universe to revolve around him.

그래서, 여러분들께 맥 부서에 관한 농담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구 하나를 끼우려면 맥 부서 직원 몇 명이 필요할까요? 답은 한 명입니다. 매킨토시 직원 하나가 전구를 붙잡고 서서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How many of you use Macs in this audience? I hope it's 95% of you. That's good. So the 5% of you who use Windows, you must be oppressed, but that's a different discussion.

여러분들 중, 맥을 사용하시는 분이 몇명이나 되시죠? 여기 오신 분들의 95프로가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었으면 합니다. 좋아요. 그럼 나머지 5프로는 윈도우를 사용하시겠군요. 아마도 억압당하고 계시는 분들 일겁니다 (맥 유저들은 윈도우 유저들을 일컬어 창조성을 억압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There's a Windows, or Microsoft version of this joke, which is how many Microsoft employees does it take to screw in a light bulb? ... I hope Microsoft isn't a sponsor ... It is? Oh shit!

아까 말씀드린 농담의 윈도우나 마이크로소프트 버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전구 하나를 끼우려면 몇 명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컨퍼런스는 마이크로소프트 후원이 아니길 바랍니다. 후원이 맞나요? 이런.....!!!

Is the Microsoft person in the room who made the sponsorship decision? You are? Oh OK.

혹시 이 후원을 결정하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있나요? 당신인가요? 음.. 알겠습니다.

So the Microsoft. I love Microsoft. I use Entourage. I used to use IE until you stopped programming it six years ago.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랑합니다. 저도 Entourage를 사용합니다. 6년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플을 위한 IE프로그래밍을 멈출 때 까지 Internet Explorer를 써왔습니다.

The Microsoft version of this joke is: How many Microsoft employees does it take to screw in a light bulb. The answer is none because Bill Gates has declared darkness the new standard.

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필요없다” 입니다. 빌 게이트가 어둠을 새로운 기준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I'll find you another sponsor next year. I'll get Apple to sponsor you. Yeah...

ㅎㅎㅎ 내년엔 제가 다른 후원자 하나를 구해드리죠 ^^ 애플 스폰서로요.음.....

You know, early in my career I watched many hi-tech CEO's speak. And I'll tell you I learned two things about them. First, they suck. They suck. They just suck as speakers. Second they go long. That's a bad combination. If you suck and you go short it's OK. If you're good and you go long it's OK. But if you suck and you go long it's a bad combination. You know it's like being stupid and arrogant at the same time.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초창기 일할 당시에는 첨단 기술 CEO 분들의 연설을 많이 관청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배운 것 2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죠. 첫번째, 그들은 형편 없습니다. 연설자로서 너무 형편없습니다. 두번째, 연설이 너무 깁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결합이죠. 여러분 연설이 형편없지만 짧으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또 연설이 좋으면,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설이 형편없고, 시간도 길어지면 정말 몹쓸 조합입니다. 이건.. 멍청하면서 동시에 거만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So err I try to prevent an audience from err believing or perceiving that I am sucking, that he can do so much. And I certainly want to show you that I have respect for you time, and one of the ways I do this is I use a top ten format, so you can always track progress through my speech. And err this way you know when I am on number five I half way done sucking, if you think I suck. So that's what I'm going to do.

그래서 저는, 청중들이 제 연설을 듣고 형편없다거나, 혹은 너무 길게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가지 항목을 정한 형식을 사용해, 여러분께서 제가 연설하는 동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항상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 방법으로 제가 5번 항목을 이야기 하고 있으면, 만약 제 연설이 형편 없다면 “아... 형편없는 연설이 그래도 받은 지나가는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설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